

## 삼성전자 이기태 정보통신사장

### 광산업진흥회 3대회장 추대



이기태 삼성전자(주) 정보통신총괄사장이 2대에 이어 한국 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3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회장은 2003년 3월 이후 2대 회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달 31일 한국광산업진흥회 제 7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973년 입사, 32년간 삼성전자(주)에 근무한 이 회장은 핸드폰신화를 창출한 입지전적 전문경영인으로 지난해 전자·통신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수여하는 '산업리더십'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위주인 국내 광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형시장 선점을 위한 권역별 회원사간 공동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R&D),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보해 복분자주, 월드베스트 브랜드상

보해 복분자주가 최근 '디지털 경영 혁신 대상-월드베스트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식정보화센터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에서 보해 복분자주가 월드베스트 브랜드 부문 대상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이 상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매일경제가 공동주최하고 국회디지털 포럼과 한국지식정보화 센터가 주관했다. 디지털 브랜드 대상은 서비스와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의미를 두는 상으로, 보해 복분자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상에 최종 선정됐다. /이종태기자 jitlee@



## 광주본부세관, 출항허가서 발급 개선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해외여행자와 항공화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항공사 업무편의 제공과 물류추진을 위해 4월부터 외국항공기 출항허가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항공사가 출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기가 출항할 때마다 세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go.kr)에 접속해 출항허가서를 발급하면 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현재 매주 평균 81편의 항공기 중 부정기 노선, 동남아 및 중국 소도시 일부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 서면 출항허가서를 발급해왔지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물류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중소 새 인증 확보 '비상'

## 중기청, 신기술 등 5종 정부 인증 받은 제품 우선구매

### 광주·전남 업체, 시간·비용 부담에 인증 확보 어려워

중소기업청이 올해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새 제도하에서 혜택을 받으려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에 '인증 확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세업체가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인증확보 자체가 어려워 우선구매제도 혜택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월 중기업체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성능인증, GS(Good software), 우수조달제품 등 5종의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행 우선구매대상인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은

NEP 등 추가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해당인증 받은 제품은 전국적으로 2천170여개에 불과하다. 이중 광주·전남의 경우 성능인증 16개를 포함, 전국의 5% 미만인 100개 제품에도 못 미쳐 상당수의 기업들이 추가로 NEP 등을 인증받아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선진국 제품 또는 국내 최고 제품과의 시험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로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월부터 실시된 성능인증제도(인증기간 1~2개월)는 각 지방중기청이 제품검사와 공장방문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이 지역의 경우 전국 341개 제품 가운데 5% 수준인 16개 제품만 부여받은 상태다.



지난달 31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문을 연 타이어 역사관 내 모터스포츠존.

## 금호타이어 소촌동에 역사관 개관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이어 역사관을 개관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1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 역사관 개관행사를 가졌다.

타이어 역사관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 1층에 260여 평 규모로 갖춰졌으며, '궤적의 연속'이라는 주제 아래 6개

전시구역으로 설계돼 있다.

타이어 제조의 주요 과정을 소개하는 '타이어 개발·제조존', '신기술 제품존', '홍보존'과 그룹 역사를 소개하는 '창업 역사존', 금호타이어의 역사를 소개하는 '회사역사존' 등으로 나뉜다.

역사관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반 방문객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업무지원팀(062-940~2050) 사전 접수하면 관람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NEP(신제품 인증)·NET(신기술 인증)= 올 1월부터 실시됐으며,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신기술을 실용화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에 최소 3개월이 소요돼 지금까지 각각 10여개의 제품만 인증을 획득했다.

304개의 소프트웨어가 획득한 GS인증(1개월)도 인증 비용 전액을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우수조달제품 인증(1천500여개 제품인증)은 특정 인증을 받은 제품이 관련법상 구매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인증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한편 중기청은 연간 6천144억원(2005년)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을 201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중기청은 오는 4월 중순께 새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게 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수완지구 3만7,0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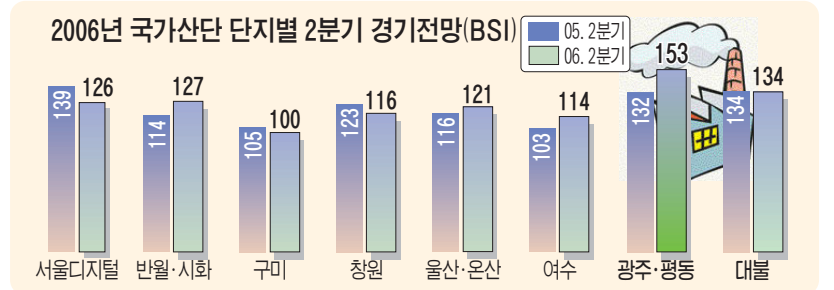
### 경쟁입찰 방식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호남권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광주수완지구의 일반상업용지 등 총 216필지(3만7천398평)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일반상업용지 76필지(1만3천평), 근린생활시설용지 89필지(1만2천평), 준주거용지 47필지, 업무시설용지 4필지(이상 6천400평)이다. 상업용지는 평당 476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평당 375만원, 준주거용지 평당 380만원, 업무시설용지 평당 233만원에 공급된다.

토공은 고객 편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에 의해 입찰 전과정을 인터넷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신청 접수는 4월 21~25일, 입찰서 제출은 21~26일이고 필지별로 공급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광주수완지구는 약 140만평의 규모로 1조여원이 투입돼 2만7천여가구, 8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될 호남권 최대의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경희기자 choice@



## “2분기 경기회복 낙관”

### 광주 국가산업단 전망지수 153...전국평균 125보다 높아

광주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경기전망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2·4분기 기업경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가산업단의 2·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분기 대비 153(전년 동기대비 132)이다.

이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834개사 응답)의 전분기 대비 지수(125), 전년 동기대비 지수(118)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광주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BSI

는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2·4분기부터 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역기업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항목별 조사결과에서도 판매가격(71)을 제외하고 생산(138), 매출(141), 내수(117), 수출(118), 자금사정(119), 고용(122), 가동률(139), 설비투자(113), 재고(110), 영업이익(119)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김정기자 jnews@kwangju.co.kr

## 금융민원 Q&A

### 간접투자상품 손실

Q:수익증권 원금손실 책임은?

A:보장각서 있어도 배상받기 어려워

Q: 개인투자자인 K씨는 주식 시장이 호황국면에 접어들자 증권 회사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증권회사 담당직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연 1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장각서를 K씨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수익증권의 만기시점에서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K씨는 보장각서를 근거로 증권회사에 원금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는 증권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부당 권유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의 원리금 보장각서 교부행위는 증권거래법상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증권투자 권유시 증권회사 직원이 교부한 원리금

보장각서는 원인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어 K씨가 손실보전 각서를 근거로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다만 부당 권유행위로 인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도 ‘투자권유 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을 띤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위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회사 창구에 비치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편입될 유가증권의 종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정도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국번없이 1332)

전국 바다의 심에 뛰어들다!

Wholesale & Retail

최고품질의 신선한 해산물

1. 매일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전국 100여개 지점 운영

2. 신선한 해산물, 당일 생산, 당일 배송

3. 고객 맞춤형 서비스, 친절하고 빠른 응대

4. 다양한 요리 레시피 제공

5.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실시

수익분으로 대박사업!!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000 대리점 직원모집

당해 100%이윤에 연노키비드로 매출목표달성을 위한사업

구강물산에서 선제형 IT(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사업

대부분의 기업은 온라인 사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모집	합법 지역	사	비
회신/계곡/곡계	전국/남부/북부/서부/동부	•보증금 및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확보 가능한 분	•소비자 유통사업 경력자 우대

직원모집

계곡부 (구강물산)소속직 또는 계약직(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 월·수·목 : 광주광역시 서구, 동촌동 1177-1
- 접수기간 : 본사로 출근마감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문의처 : Tel 062-372-0017 Fax 062-372-0018

구강물산 호남총판 (주)조인스대코